

이집트 동포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박수).

카이로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연주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솜씨가 아주 훌륭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 들으면서 고향생각 나나 봅니다. 손수건 꺼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할 말이 좀 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국 소식을 매일 듣고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보니까 아리랑 TV, KBS 월드도 나오고, 그보다 더 빠르게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고향소식 전한다고 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카이로에 계시지만 자주 못 보고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있는 것처럼, 저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까이서 국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해외 나오면 동포들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서 만나면 느낌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국민들 만나면 이렇게 반갑지 않은데 나와서 만나면 아주 반갑습니다.(박수) 제가 들어올 때도 박수를 길게 쳐주셨는데 남들이 보면 아주 인기 좋은 대통령처럼 착각할 것 같습니다.(웃음) 국내에선 박수 절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나오면 정말 아주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주시는 심경이

마주보고 있으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언제나 어디를 가도 제일 기분이 좋은 것은 여러분들 살고 계신 모습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더 빨리 안 간다고 걱정하고, 잘 가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연히 꾸중도 많고 보기 따라 시비도 좀 많아서 때때로 힘들다는 생각도 들고 확신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와 보면 정말 잘 될 거라는 제 믿음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다시 섭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해외 나와 있는 상사들의 큰 광고판, 거리를 다니는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것 생각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외교포들입니다. 어디에나 한국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다들 모범생입니다. 지난 번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도 동포들 얘기를 했더니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모범적이고 러시아 사회에 기여하고 때로는 러시아 지도적 위치에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한국 사람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들으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들은 김에 아쉬운 소리 좀 했더니 즉석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해서 해결해 준 게 아니라 한국 동포들에 대해 굉장히 좋은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인데도 다 해결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를 보듯 어디가도 한국 동포들을 보면 제가 정말 자부심 느낄 만큼 누구든 그렇게 평가를 해 줍니다.

그 나라 지도자들이 한국 동포에 관해서 확실한 칭찬을 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만 잘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자질과 품성이 우수하고 착한 겁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리가 잘 하는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잘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잘 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최승호 대사에게 물어봤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희망사항, 걱정거리가 있을 텐데도 전체적으로 우리 동포들은 정말 착하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얘기 아십니까?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100% 좋은 이웃일 수만은 없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좋은 이웃이라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착한 사람이 능력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만 해도 반갑고 자랑스러울 텐데 여러 모로 잘 하신다고 하니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카이로 계시더라도 대사 자주 못 보시죠? 최승호 대사 인사 한번 하십시오. 우리 외교부 장관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후보하신 거 아시죠? 그냥 후보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 와 계십니다. 한국의 반도체를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인공입니다. 장관을 너무 오래했습니다.(웃음)

이집트가 지금 전자정부 계획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국가 전체 사회정보통신 IT화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총리도 정보통신부 장관 하던 분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한국과도 교류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장관도 와 계십니다. 에너지와 무역 투자 부분 모두 산자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집트에 한국 투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집트 경제나 정책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외교국가

이집트는 경제외교가 아니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활발하게 외교를 한 이유는 북한하고의 경쟁 때문이었습

니다. 그 뒤 북한과의 외교경쟁이 없어지고 보니 자연스레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가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경제가 점차 아시아권을 넘어서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면서 외교가 경제 따라 강화돼야 하는 측면이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 전체가 한국이 가만 있더라도 좁아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통합돼 나가고 있고 한국은 뺏어나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외교의 지평 넓어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랍권 중심 국가인 이집트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외교관계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알제리도 가는데, 옛날에는 외교 경쟁을 위해 바빴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로 뺏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교가 더 바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생기고 한국 대통령이 처음 왔습니다. 오랜만도 아니고 그냥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에서 걱정하는 여러 얘기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해외봉사단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나가는 줄은 알지만 이집트에 이렇게 많이 온 줄은 몰랐습니다. 70여 명이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좋은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겠지만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위상을 해외에 각인시키는 좋은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봉사활동은 지구촌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걱정은 해외 봉사활동 너무 오래 한 분들은 그 사회에 적응이 되면서 한국에 오면 적응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연구하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개인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본인들이 우선 판단하리라 보고 늘리는 방향으로 운용중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도 수요가 있는 만큼은 넓히려고 합니다.

관광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관광도 유행이 있습니다. 가는 지역에도 유행이 있어서 그것을 정부가 통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넓게 보고 돌아오면 한국에 새로운 안목으로 기여할 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광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도 2003년에는 3만, 2004년 4만, 2005년에는 거의 5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이집트에 많이 가라고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해외 나가는 것 때문에 불균형으로 인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과 의료 등의 혜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 의료 수준이나 생활수준도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 향후 우리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문제

중국이 맹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느끼느냐에 따라 불안감은 각기 다릅니다. IT에서 부품 일부 이외에 반도체나 전자제품은 한국 이외에는 선진국에서는 문 닫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입니다. 작년이 250억 달러이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부분의 산업은 한국에 빼기고, 중국에는 더 많이 빼기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이전해 오고 한국에 투자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성장 때문에 일본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 따라잡고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국이 54억불을 중국에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엄청 나간다는 것이고 국내에 실업자 생기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만일 성장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국도 큰일 납니다. 중국이 저 속도로 계속 성장해 주는데 한국에게 큰 기여가 됩니다.

중국 시장 없으면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 겪게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중국이 크는 만큼 활용할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문제입니다. 첨단기술은 아직 얼마간은 한국이 앞서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첨단이 아닌 다른 분야는 유럽에서 그러는 것처럼 전 국민의 직업 능력 향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대나 실업학교도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빨리 안 돼서 답답하겠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대학 변하는 것을 챙겨보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걱정인 것이 사회 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게 학교 선생님입니다. 몇몇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중 한 집단입니다. 그밖에 2-3개 있지만 맘 상할까 봐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중국에게 따라잡힐까 걱정하지 않을 수준의 속도로는 한국 교육은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의 직장 간 이동이 빠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빨리 변하고 영업의 형태도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직장 이동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평생직장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면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직업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따라 잡을 수 있도록 교육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빨리 양성되어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 시행령 만드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모집하고, 교육훈련하

고 연습하는데 1년 가고, 또 1년이 갑니다. 쓸 만한 정책은 한 5년~10년
잡아야 합니다. 긴 세월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주 빠른 세월입니다.

특히 고용지원 서비스나 전 국민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는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갖춰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칠 때까지는 전 국민
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서비스와 직업 알선 서비스를 확실히 갖춰 놓겠
습니다. 직장을 쉽게 옮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뒷받침할 것입니다.

개인 창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 상권에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
웃에 동종 업체가 몇 개 있는지까지 조사해서 정부에서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게 시장 정보만큼 빠를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과는 달리 처
음 창업하려는 사람은 시장 정보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사람
들에게는 정부 정보가 앞선다는 판단 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
심히 해가면 결국에는 전 국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앞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개방은 도전이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경쟁력 갖게 한다

언젠가는 제조업 기술은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
라에서는 제조업 인구가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수밖에 없
습니다. 제조업이 따라잡힌다면 금융업이나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디자
인, 유통 그리고 물류 등의 지금까지 선진국과 경쟁 안 되고 있는 영역에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제품과 달리 이런 부분은 격차가 많이 남
니다. 이걸 따라잡기 위해 과감히 개방하려고 합니다.

이집트가 개방하듯이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세계 최고 수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서비스를 개방해서 경쟁 속에서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쪽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개방은 모든 사람에게 도전입니다. 많은 이들이 곤란해지고 도산할지도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이 경쟁력 갖게 됩니다. 법률부분의 변호사 하는 사람들은 개방으로 어려워지겠지만 전체 법률서비스 생산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GDP 총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주변의 일자리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몇몇 업체를 보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경쟁체제를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 돼야 합니다. 금융도 2003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80%가 대학을 진학합니다. 고학력 인력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학 졸업한 사람에게 자꾸 공장으로 내려가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력구조에 맞게 개방된 시장경제, 정치적 민주체제가 갖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에게 따라잡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많은 시장 환경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중국이 부자가 될수록 한국에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시지만 본국의 국민들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잘 해낼 것입니다. 중동외교, 아프리카 외교 걱정도 많이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착수한다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우성치는 데만 따라가도 대강 맞는 거 같습니다. 정부가 많은 정보 가진 것 같지만, 시장의 필요에 따른 정보는 정부는 기업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 수준으로 기업들이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뒤따라가기만 해도 늦지는 않습니

다. 정치적 관점에서 한국이 중동, 아프리카 관심 갖고 노력하라는 얘기는 중요하게 듣고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FTA 한다니 어떤 사람은 손해 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열기만 열면 득본다고 하고, 시나리오가 다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얼마만큼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 얼마만큼의 속도로 개방하느냐, 높은 수준이냐 중간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이런 시나리오마다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 가정이고 생각도 다른 거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온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연구해도 다 아니라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 낮겠지만, 지금처럼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잘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문 열어놓고 제대로 대응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위기 점점할 수 있는 시스템 유지하고 있다

딱 한번 실패가 97년 외환위기인데, 외환시장 개방해 단기자금 들여와 장기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투자 과열 상태로 기업이 부채를 많이 져서 무너진 것입니다. 2002, 2003년은 개인가계의 빚이 많아져서 휘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개인 역량이 아니라 전체적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관치금융 체제 속에서 정부가 은행을 운영했기 때문에 부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97년 전에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나 정치하는 사람에게나 금융 시스템 부도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갖고 경쟁합니다. 비싼 수업료 지불했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했지만 국민 개개인 역량이 떨어져 실패하진 않았습니다.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면 국민들 해내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97년 처럼 금융시스템 오류가 발생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계속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위기도 금융시장에서의 관리 잘못 문제입니다. 상징적으로 카드를 길거리에서 팔았던 것,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당시 음식업, 숙박업에 부동산 대출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 등은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적신호가 오도록 금감위 같은 정부 여러 기관이 1선, 2선, 3선으로 중첩적으로 경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치렀기 때문에 관리 능력이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보수적이고 안정위주로 가는 게 걱정일 만큼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의 역량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